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김유나** · 설경옥*** · 박선영****

초 록

본 연구는 경쟁과 성취결과가 강조되고 내적 동기 추구가 좌절되기 쉬운 학업환경에서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 추구와 이들의 심리적 그리고 학업적 적응과의 관계를 밝히고 각각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할수록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을 더 경험하며 이는 곧 심리적 부적응과 학업성취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물질주의 추구가 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더 해가 된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물질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성차를 예상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제주지역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청소년 195명과 여자 청소년 142명의 총 337명을 대상으로 물질주의,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부적응에 관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고 학업성취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물질주의는 심리적 부적응을 정적으로, 학업성취를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각각의 관계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차를 검증한 결과 물질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물질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의 지향이 내적 만족에 중요한 가치들을 대신함으로써 심리적 적응과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결과만이 중시되고 경쟁을 부추기며 통제적인 내적 동기를 낮추는 국내의 교육환경에서 인간의 기본적 심리 욕구를 충족하는 물질적인 것 이전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재고할 필요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청소년 정책 및 상담에 갖는 함의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물질주의 가치, 청소년, 기본심리욕구, 학업성취, 심리적 부적응

* 본 연구는 김유나(2015)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 koseol@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I. 서 론

한국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가치는 성인과 청소년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동시에 자살률은 최상위에 속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y, 2010; 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물질주의란 물질의 소유나 획득을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자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물질적 가치를 다른 가치들에 비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정의 되는데(Dittmar et al., 2014), 이러한 물질주의는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팽배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은 치열한 경쟁 및 성취 위주의 학업환경과 함께 물질주의 가치의 추구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김진혁, 2011). 물질주의 가치의 발달의 주요 경로는 물질주의적 환경에의 지속적인 노출과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본보기(예: 부모와 또래 그리고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이다. 아동, 청소년기에 물질주의적인 부모, 또래 그리고 미디어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아동과 청소년은 이러한 물질주의적 가치를 내면화 하여 발전시키게 된다(Ryan & Connell, 1989).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친 물질주의 문화 그리고 경쟁적이고 치열한 입시문화는 청소년들이 물질주의 가치를 보다 쉽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사실 경쟁적이고 치열한 입시문화의 근본에는 성공제일주의 혹은 물질만능주의 같은 물질주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 이미 일찍부터 노출되어 온 청소년들은 자아실현, 공동체, 영성과 같은 내적 가치의 탐색과 발달보다 돈, 성공, 명예, 지위와 같은 외적 가치의 내면화와 발달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 전국 초·중·고생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학생이 인생의 최고 목표를 ‘돈’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렇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는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돈,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명예가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삶의 만족이나 행복 그리고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더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행동장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신병리 증상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ttmar et al., 2014; Kasser, 2002). 이러한 발견은 아동이나 성인, 육체노동자나 사무직, 그리고 다양한 국가와 문

화권(예: Kim, Kasser & Lee, 2003; Martos & Kopp, 2012)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물질주의 가치가 팽배한 문화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주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은 극히 제한적이다(예: 김정미, 2014; 홍기원, 김연우, 2015).

청소년기는 자기개념과 가치관이 수립되는 시기로서 특히 물질주의 가치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후 발달단계에 미치는 과급효과 또한 크다(박성연, 이종미, 임숙자, 2001). 우리 사회에 지배적인 물질주의 가치가 청소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 외국 연구를 토대로 국내 청소년의 물질주의와 적응의 부적 관련성을 추측해볼 수 있지만 국내의 물질주의와 청소년 적응에 관한 연구는 극히 소수만 존재한다. 기존 연구는 국내 대학생의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과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았고(김정미, 2014) 행복의 기준이 물질적 만족이라 생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타인에게 해가 되더라도 욕구충족을 위한 비행행동을 하기 쉽다(전귀연, 1998)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동양 문화권에서도 반복됨을 확인하였다(Chen, Yao & Yan, 2014). 또한 물질주의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영국과 홍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횡단, 종단 및 실험 연구에서 문화권에 상관없이 물질주의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수렴적인 결과(Ku, Dittmar & Banerjee, 2014)를 통해 국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청소년에게 물질주의를 포함한 외적 동기는 결과 중심적 환경에서의 학업 성취 결과 자체에는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을(김아영, 2010; 한순미, 2003)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청소년에게도 반복적으로 물질주의 가치가 심리적, 학업적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가 물질주의 가치 추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이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물질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학업성취의 관계

물질주의 가치 추구는 여러 연구를 통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일관되게 밝혀져왔다(Burroughs & Rindfleisch, 2002; Kasser, 2005; Kasser & Ryan, 1993, 1996). 초기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의해 물질주의 가치는 삶의 중요한 가치들과 충돌하며 삶의 만족과는 부적응으로, 우울증과 신경증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와는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Burroughs & Rindfleisch, 2002). 물질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정적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존재하였다. Dittmar와 동료들(2014)의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최근 메타분석에서도 측정방법이나 연구 대상자의 문화, 성별, 나이, 인종, 국가 등에 상관없이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전반적 측면에서 일관된 부적 관련성을 발견했다. Kasser와 동료들(2014)은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부적관계의 안정성과 선후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6개월, 2년, 12년 간격의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 불안을 포함한 정신병리가 증가하고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졌음을 발견하였고 물질주의 가치가 줄어든 경우에는 정신병리가 줄어들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반대의 결과도 밝혀냈다. 또한 1930년대부터 2007년까지 미국 청소년들의 정신병리 변화를 시교차적 메타분석(cross-temporal meta-analysis)을 통해 알아본 연구 결과, 과거에 비해 최근의 청소년들에게서 우울, 불안을 포함한 정신병리 지표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이 과거 삶의 의미, 공동체, 소속감 같은 내적가치 추구에서 물질주의나 지위와 같은 외적가치 추구로의 문화적 변화에 의한 것임을 발견했다(Twenge et al., 2010). 이와 같이 청소년의 주요 심리적 부적응 문제인 우울과 불안은 물질주의 가치추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불안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이며(권순용, 양연숙, 2007; 김명식, 2009; 최재빈, 곽인호, 이상현, 최지호, 조성민, 1999; Caldwell, Zimmerman, Bernat, Sellers & Notaro, 2002) 나아가 비행 행동, 등교거부, 자살과 같은 외현화문제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이다(김갑숙, 전영숙, 2012; 장동산, 이길홍, 민병근, 1985; 한

영희, 조아미, 2009).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물질주의의 역할을 알아보려고 한다.

물질주의 가치 추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뿐 아니라 학업성취와도 부적응으로 높은 상관성이 있다. 내적 동기는 학업성취와 정적 상관성이 있는데 반해(Niemiec & Ryan, 2009) 물질주의 가치의 추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외적이고 수단적인 가치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내적 동기로 임하는 것을 방해한다(Deci, Koestner & Ryan, 1999). 물질주의적인 아동일수록 학교를 덜 좋아하고 학업성취도 더 낮았으며(Goldberg, Gorn, Peracchio & Bamossy, 2003), 한 실험연구에 의하면 돈을 포함한 외적 동기와 관련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점화하였을 때 학습과정에서의 깊은 처리와 과제 지속성, 수행 결과가 떨어졌다(Vansteenkiste, Simons, Lens, Sheldon & Deci, 2004). 또한 경제적 성공이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같은 외적 목표의 성취를 주로 기대하며 학습에 임하는 청소년은 배움 자체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적응적 학습전략을 사용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학업성취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icholls, Patashnick & Nolen, 1985; Vansteenkiste et al., 2004).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성향이 높고 이들에게 학업성취란 배움 자체나 자신의 능력 발전보다는 타인보다 더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Browne & Kaldenberg, 1997; Chan, 2007; Ku et al., 2014). Ku와 동료들(2014)은 또한 실험을 통해 아동이 물질주의적 가치를 점화 받았을 때 새로운 학습의 기회 대신에 수행 결과를 드러내기 위한 쉬운 과제를 선택했고 점화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노력을 지속하는 시간도 더 짧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물질주의 추구가 결국 아동의 실제의 삶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학습과 미래를 위한 발전의 기회를 포기하고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당장 드러낼 수 있는 높은 점수나 등수를 얻는 수행 자체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장기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능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같은 경쟁과 성취 결과가 강조되는 국내 학습 환경에서(김성일 외, 2008) 청소년들의 물질주의 가치추구가 이들의 심리적 안녕과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추구와 심리적 안녕 그리고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2.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 추구에 따르는 심리적 부적응 문제 그리고 학업성취 저하는 기본심리욕구의 좌절로 설명될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이고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행동이나 선택의 동기가 자율적일수록 내적 동기가 유발되어 이를 통해 기본적 심리욕구가 충족된다고 본다(Deci & Ryan, 2002).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흥미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구인 자율성, 자신이 가진 역량 내에서 최대한 자신감이나 효율성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인 유능성, 타인과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인 관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Ryan & Deci, 2000a).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은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맥락은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촉진 혹은 방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Deci & Ryan, 2008). 국내 청소년들은 통제적이고 경쟁적인 교육환경과 빈번한 평가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흥미가 감소하고 40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비교연구에서도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학습 흥미를 나타내었다(김성일 외, 2008). 자신의 우선순위를 성적이나 돈, 외모 등과 같은 외적가치에 둘 때, 상대적으로 내적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 쉬우며 이는 이후 심리적 부적응과 안녕감의 저하로 이어진다(Vansteenkiste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성취결과가 강조되는 국내 교육환경이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방해할 수 있는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맥락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물질만능주의, 성적지상주의와 같은 외적가치를 내면화하기가 더욱 쉽고,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할수록 이들의 기본심리욕구는 더욱 좌절될 것이며,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은 심리적 부적응 그리고 학업성취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물질적 소유나 획득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적동기의 추구하고 기본심리욕구만족을 좌절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물질주의가 궁극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Belk, 1985; Deci et al., 1999; Dittmar et al., 2014; Kasser, 2002). Kasser와 Ryan(2001)은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을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기본심리욕구 좌절이 물질주의 추구로 이어질 수 있지만,

물질주의 추구가 심리적 욕구 좌절의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가치로서 개인의 행동에 동기적 목적(motivational goals)을 제공하고 이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의 좌절을 일으킬 만한 적극적인 행동과 경험을 하게 이끄는 동력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은 사회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남의 의견에 의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불안정하게 되어 유능감이 좌절되기 쉽다.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은 관계나 호의에 가치를 덜 두고 따라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덜 갖게 되어 관계성의 좌절을 겪기 쉽다. 끝으로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개인은 돈을 벌거나 물질적 소유를 얻는 외적보상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내적보상에 대한 선택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자율성 욕구의 좌절을 더 겪기 쉽게 된다(Kasser & Ryan, 1993). 실증 연구에서도 물질주의 가치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응의 관계를 갖는다는 경로는 다수의 횡단, 종단, 실험연구를 통해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예: Dittmar et al., 2014; Kasser et al., 2014; Nagpaul & Pang, 2017; Wang, Liu, Jiang & Song, 2017). 물질주의와 안녕감 관련 연구 259편을 분석한 메타연구에서는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일관적인 부적상관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매개변인은 기본심리욕구 불만족임이 밝혀졌으며(Dittmar et al., 2014) 최근 연구에서는 3차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물질주의가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방해하고 이것이 다시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응으로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향성이 검증되었다(Wang et al., 2017). 목표내용에 관한 Grouzet과 동료들(2005)의 연구에 따르면 돈은 인기나 이미지와 함께 외적 목표의 핵심요소로 자기수용, 소속감, 공동체 같은 내적 목표와 상반된다. 선행 연구 결과 내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Kasser & Ryan, 1996) 물질주의 가치의 추구는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Kasser, 2002). 인간이 기본욕구충족의 감소 혹은 위협을 지각할 때에는 전형적으로 불안, 슬픔, 적대감 등의 부정적 감정들이 나타난다(Ryan & Deci, 2000b). Chen과 세계 각국 14명의 동료들(2015)은 중국, 벨기에, 미국, 페루의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기본심리욕구의 좌절과 정신병리의 관련성이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여 이러한 관계가 여러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국내연구에서 역시 청소년들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이들의 우울, 학교생활 부적응과 상관이 있었다(김성수, 2015; 김아영, 이명희, 2008).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결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인간의 학습, 성장, 발달을 위한 자연적인 동기인 내적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초이며(Deci & Ryan, 1985) 행동 자체에서 기쁨과 흥미를 느끼는 내적 동기는 효과적인 학습과정이나 높은 학업성취 결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Niemiec과 Ryan(2009)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내적 동기의 추구 그리고 외적 동기 중에서도 내적 동기와 가장 비슷하게 통제소재가 자기 내부에 있고 내적 욕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 및 외적 요소를 추구하는 자발적인 유형의 외적 동기(autonomous types of extrinsic motivation)의 추구는 학습에의 참여와 최적의 학습을 이끌어내며 교사가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지지할 때 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조절, 학업 성취, 안녕감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Vansteenkiste와 동료들(2006)은 자기결정성 이론과 학습에 대한 실험연구 문헌들을 정리하여 고찰한 결과, 외적 목표의 점화나 점화가 없는 조건에 비해 내적 목표가 점화되었을 때 피험자가 학습활동에 더 깊은 관여를 하였으며 개념적 학습을 더 잘 하고 학습에의 높은 지속성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의 기본심리욕구와 학업성취의 관계 논문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r=.15$), 유능성($r=.33$), 관계성($r=.27$) 모두 학업성취와 작은에서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김성수, 윤미선, 2012).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가 기본심리욕구의 불만족을 가져올 것이며 그 결과 심리적 적응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3. 성차

물질주의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성에게서 더 그러했다.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메타연구에서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부적 관계는 연구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Dittmar et al., 2014). 구체적으로 물질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여성으로만 구성된 표본에서의 평균 효과크기(d)는 $-.24$, 남성으로만 구성된 표본의 평균 효과크기는 $-.09$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메타분석 연구자들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치, 자존감, 자기가치감이 상당부분 의

모나 이미지와 같은 외적 요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Dittmar, 2008), 전통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온 남성의 물질주의 추구가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욱 용인되어 고통을 덜 받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Dittmar et al., 2014).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여성들은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자기 대상화(self-objectification) 경향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더 낮은 삶의 만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Teng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물질주의가 우울, 불안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남자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들에게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성차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고 물질주의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성차는 연구된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밝혀진 물질주의와 심리적 적응의 성차를 청소년 집단에게 적용해 여성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가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가정하였고, 물질주의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의 성차는 가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물질주의 가치는 심리적 부적응과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 관계를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할 것이다.
2. 물질주의 가치는 학업성취와 부적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 관계를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할 것이다.
3.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시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3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부를 제외하고 총 337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자 195명(57.9%), 여자 142명(42.1%)이었고 응답 당시의 평균 연령은 만 17.17세($SD=.38$)였다. 자료는 수업시간 중에 실시된 참여자의 자기보고식 설문과 더불어 교사로부터 확인한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를 학업성취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계획 승인이후 설문실시와 학업성취자료 수집에 대한 학교 측의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연구 대상자인 청소년 본인의 동의서와 법적 대리인인 학부모 동의서를 받고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물질주의

물질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 및 타당화한 물질주의 척도(Material Values Scale: MVS)를 심리학 교수 1인과 심리학 박사과정 전공자 3인,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한 석사과정 전공자 1인, 심리학 전공 이중언어구사자 1인이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인 물질적 소유를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성공수단적 물질주의(예: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6문항, 삶에서 물질의 획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획득중심적 물질주의(예: 역문항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7문항, 물질의 소유가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중심적 물질주의(예: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물질주의적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83 성공수단 .75, 획득중심 .68, 행복중심 .61로 나타났다.

2) 기본심리욕구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Ryan과 Deci(2002)의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y Needs Scale)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자율성(예: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6문항, 유능성(예: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6문항, 관계성(예: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6문항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서의 욕구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88, 자율성 .81, 유능성 .84, 관계성 .85로 나타났다.

3) 심리적 부적응

심리적 부적응은 우울과 불안으로 측정하였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최상진, 전경구와 양병창(2001)이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를 기반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판 CES-D 척도의 번안내용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극히 드물다(1주일 동안 1일 이하)=0’부터 ‘대부분 그랬다(1주일 동안 5일 이상)=3’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1에서 4점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이장호, 한덕웅과 전경구(1996)가 Spielberger(1983)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STAI-Y)을 한국어판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 중 특성불안검사

의 일부 번안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특성불안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4) 학업성취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고 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어 수학과목의 표준화 점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 점수는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등급이나 백분위와 같은 정보는 한 단위 구간 당 여러 점수대가 포함됨으로 선택과목과 난이도에 관계없이 상세한 비교가 가능한 표준점수를 선택하였다. 교사가 보고한 학업성취 자료와 청소년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대상이 제시한 반 번호 정보를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코드화 한 후 매칭 하였으며, 매칭 작업이후 개인정보는 폐기한 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과 Mplus 7.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통해 검증하고, 기술통계 분석으로 자료의 이상치 및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잠재변인 및 측정변인 간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셋째, 청소년의 물질주의와 학업성취,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한 후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간접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가 .90이상이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08이하 SRMR이 .08이하이면 적절한 합치도라고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최종모형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은 원자료($N=337$)에서 무선으로 만들어진 5000개의 표본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여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Shrout & Bolger, 2002). 또한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과 경로계수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물질주의,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물질주의는 기본심리욕구($r=-.21, p<.01$) 및 학업성취($r=-.14, p<.05$)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심리적 부적응($r=.1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기본심리욕구는 심리적 부적응($r=-.62, p<.01$)과 강한 부적 상관, 학업성취($r=.24,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2. 물질주의와 학업성취,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물질주의와 기본심리욕구, 학업성취와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측정모형 검증결과 $\chi^2(38)=76.93, p<.01, TLI=.957, CFI=.970, SRMR=.037, RMSEA=.055(90\% \text{ 신뢰구간}=.037-.073)$ 의 좋은 적합도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11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10). 물질주의가 심리적 부적응, 학업성취와 갖는 각각의 관계를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할 것임을 가정한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결과, $\chi^2(38)=76.93, TLI=.957, CFI=.970, SRMR=.037, RMSEA=.055(90\% \text{ 신뢰구간}=.037-.073)$ 로 좋은 적합도(Browne & Cudeck, 1993)가 나타났다.

최종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물질주의에서 심리적 부적응으로 가는 경로와 물질

주의에서 학업성취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다른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2(p<.001)$, 기본심리욕구에서 심리적 부적응으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80(p<.001)$, 기본심리욕구에서 학업성취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0(p<.001)$ 로 나타나 물질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와 물질주의와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를 기본심리욕구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원 자료에서 무선할당으로 5,000개의 표본을 만들어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분석결과 물질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간접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21, 95% Bias-corrected CI=[0.093, 0.392], 물질주의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간접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2.27 , 95% Bias-corrected CI=[-4.857 , $-.830$]로 나타나 기본심리욕구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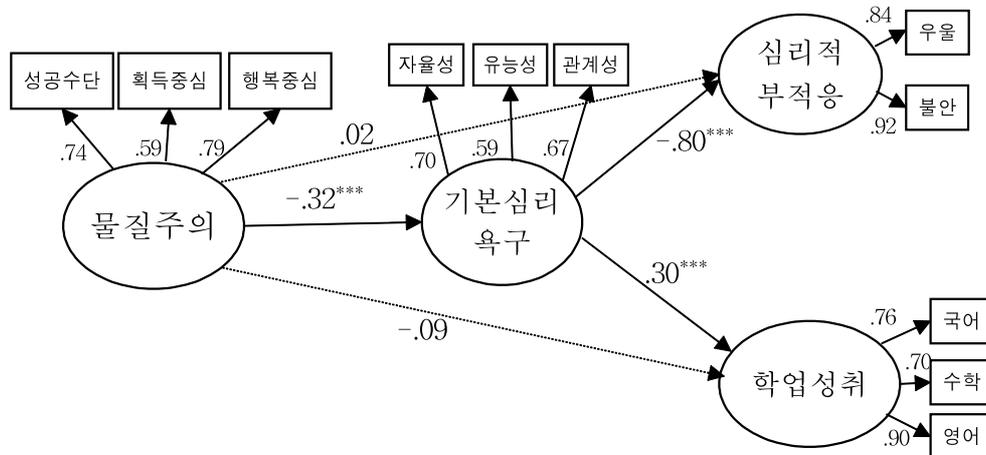


그림 1. 물질주의,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부적응 학업성취의 구조모형(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표 1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계수(N = 337)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4	4-1	4-2	4-3
1. 물질주의	1														
1-1. 성공수단	.86**	1													
1-2. 획득중심	.80**	.46**	1												
1-3. 행복중심	.78**	.58**	.44**	1											
2. 기본심리욕구	-.21**	-.14**	-.11*	-.27**	1										
2-1. 자율성	-.21**	-.18**	-.05	-.30**	.79**	1									
2-2. 유능성	-.14*	-.09	-.10	-.16**	.77**	.37**	1								
2-3. 관계성	-.15*	-.07	-.11*	-.17**	.80**	.48**	.44**	1							
3. 심리적부적응	.19**	.11*	.12*	.24**	-.62**	-.53**	-.45**	-.51**	1						
3-1. 우울	.16**	.09	.11*	.20**	-.56**	-.46**	-.38**	-.49**	.94**	1					
3-2. 불안	.22**	.13*	.13*	.28**	-.61**	-.55**	-.45**	-.45**	.94**	.77**	1				
4. 학업성취	-.14*	-.10	-.12*	-.12*	.24**	.17**	.23**	.17**	-.16**	-.19**	-.10	1			
4-1. 국어	-.16**	-.13*	-.13*	-.10	.19**	.17**	.16**	.11*	-.11*	-.15**	-.06	.84**	1		
4-2. 수학	-.06	-.02	-.08	-.07	.18**	.07	.21**	.13*	-.13*	-.16**	-.07	.86**	.54**	1	
4-3. 영어	-.14**	-.12*	-.10	-.15**	.26**	.20**	.21**	.21**	-.16**	-.18**	-.12*	.88**	.68**	.63**	1
평균	2.96	2.94	2.95	3.00	4.27	4.23	3.95	4.65	2.10	1.75	2.45	109.27	109.19	109.18	109.43
표준편차	.50	.70	.56	.58	.61	.80	.80	.72	.47	.51	.49	14.82	16.12	19.73	15.82
왜도	.02	.06	-.03	.04	-.12	-.19	-.21	-.46	.79	1.20	.22	-.41	-1.34	.08	-.66
첨도	-.02	-.03	-.09	.14	-.36	-.01	.16	.10	.72	1.5	-.12	-.08	1.82	-.82	.15

* $p < .05$, ** $p < .01$, *** $p < .001$

3. 성별에 따른 모형검증

청소년의 물질주의, 기본심리욕구와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구조모형이 성별에 따라 동일한지와 더불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가 집단 간 서로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조모형이 남녀 청소년 집단 간 동일한지 밝히기 위해 집단 간 요인 수와 요인구조가 같은지 형태동일성을 검증하고, 측정변수가 집단 간 동일한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요인계수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후 마지막으로 집단 간 구조계수가 동일한지 확인하고자 구조동일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김수영, 2016). 먼저 남녀 간의 형태동일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76, N=337)=113.60$, $TLI=.960$, $CFI=.972$, $SRMR=.045$, $RMSEA=.054(90\% \text{ 신뢰구간}=.032-.074)$ 의 좋은 적합도가 나타나 남녀 집단 간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다음으로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모든 측정변인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을 비교한 결과 완전측정동일성이 기각되어($\Delta\chi^2(7, N=337)=21.32, p<.01$) 부분측정동일성이 확보되어도 다집단 분석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결과(Byrne, Shavelson, & Muthen, 1989)에 근거하여 부분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한 개(기본심리욕구-자율성)의 측정단위 동일화 제약을 해제한 모형(부분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을 비교한 결과 부분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Delta\chi^2(6, N=337)=9.56, p>.05$).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작은 순서로 제약해 나갔다. 순차적으로 경로의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교한 결과 남녀 간 모든 경로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구조동일성 5)에 비해 기본심리욕구에서 심리적 부적응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집단 간 경로계수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모형이 더 적합하였으며($\Delta\chi^2(1, N=337)=11.62, p<.05$) 최종적으로 기본심리욕구에서 심리적 부적응으로의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동일화 제약을 가한 최종모형(구조동일성 4)의 남녀집단 간 표준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물질주의에서 기본심리욕구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남자 청소년이 $-.34(p<.001)$, 여자 청소년이 $-.25(p<.001)$, 물질주의에서 심리적 부적응으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남자 청소년이 $.02(p>.05)$, 여자청소년이 $.03(p>.05)$, 물질주의에서 학업성취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남녀 청소년 모두 $-.10(p>.05)$, 기본심리욕구에서 학업성취로의 표준화 경로

계수는 남자 청소년이 .25($p < .001$), 여자청소년이 .33($p < .001$) 이었고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심리욕구에서 심리적 부적응으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남자 청소년이 .86($p < .001$), 여자청소년이 .74($p < .001$)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2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i>df</i>	<i>p</i>	TLI	CFI	RMSEA	판정
기저모형	113.60	76	<.001	.960	.972	.054	채택
완전측정동일성	134.92	83	<.001	.950	.962	.061	기각
부분측정동일성	123.16	82	<.001	.959	.970	.055	채택
구조동일성(1)	123.18	83	<.001	.961	.971	.054	채택
구조동일성(2)	123.93	84	<.001	.962	.971	.053	채택
구조동일성(3)	124.70	85	<.001	.962	.971	.053	채택
구조동일성(4)	125.95	86	<.001	.963	.971	.053	채택
구조동일성(5)	137.57	87	<.001	.953	.963	.059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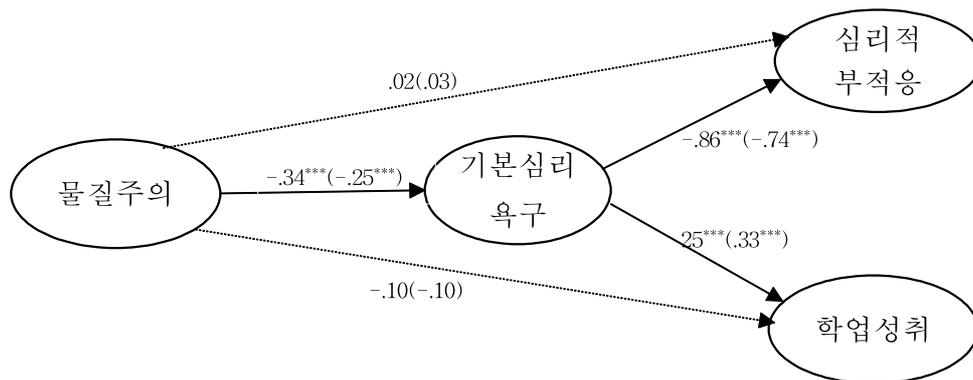


그림 2. 요인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연구모형

*** $p < .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괄호 안 계수는 여자)

V. 결론 및 논의

우리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는 급속한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문화지체의 결과로 삶에서 물질주의 가치를 더 추구할수록 행복도는 낮아지고, 우울, 자살율은 높아지는 심리적 대가가 따른다(구재선, 서은국, 2015; 송인숙, 1991; Diener et al., 2010). 물질주의 가치 추구하고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는 비단 성인뿐 아니라 성과위주의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루는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 추구가 학업성취 저하로 이어진다는 국외 연구가 몇 편 존재하지만(Goldberg et al., 2003; Ku et al., 2014)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청소년의 물질주의 추구가 갖는 발달적 함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물질주의 가치 추구하고 심리적 부적응 그리고 학업성취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설명하는 기제로 기본심리욕구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또한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물질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가져오는 부적 영향에서 여성이 더 취약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 추구하고 심리적 부적응간의 성차를 가정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물질주의와 학업성취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가설은 지지되었고, 물질주의 가치에서 심리적 부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를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물질주의 가치는 심리적 부적응에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이 관계를 기본심리욕구가 완전매개하였다. 물질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간의 상관은 유의하였으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물질주의가 심리적 부적응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을 통해서만 심리적 부적응을 설명하였다. 이는 물질주의와 우울 및 불안 간의 정적 관계(Burroughs & Rindfleisch, 2002; Dittmar et al., 2014; Kasser & Ryan, 1993; Ryan et al., 1999), 기본심리욕구와 우울, 불안 간의 부적 관계(Chen et al., 2015; Ng et al., 2012)를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물질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의 추구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포함한 내적 욕구의 만족을 저해하는 경우 우울, 불안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Dittmar et al., 2014).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하는지 살펴

본 결과, 물질주의 가치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이 관계를 기본심리욕구가 완전매개하였다. 물질주의와 학업성취 역시 상관이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기본심리욕구의 매개변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물질주의가 학업성취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았고,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을 통해서만 물질주의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와 학업성취간의 부적 관계(Goldberg et al., 2003; Ku et al., 2014), 기본심리욕구와 물질주의의 부적 관계(Dittmar et al., 2014; Kasser, 2002) 그리고 기본심리욕구와 국내 청소년의 학업성취 간의 정적 관계(김성수, 윤미선, 2012; 이민희, 정태연, 2008)를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또한 중단 및 실험연구를 통해 아동의 물질주의와 학업성취 간의 인과적 관계를 학습동기가 매개하는 연구(Ku et al., 2014)와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학생일수록 학습에 덜 내적으로 동기화되며 더 낮은 학업 수행을 보였다는 중단연구(Ku, Dittmar & Banerjee, 2012)와도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높은 학업성취와 물질주의적 가치를 동시에 증시하는 국내의 교육적, 사회적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추구가 이들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충족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물질주의 가치의 추구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본 모형에서 물질주의 가치에서 심리적 부적응으로 가는 경로에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 남성에 비해 여성이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할수록 심리적 부적응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를 밝힌 선행연구들(Dittmar et al., 2014; Teng et al., 2016)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경우 물질주의 추구가 성별에 상관없이 부적응적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으나 아직 아동, 청소년의 물질주의와 발달결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청소년들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성별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환경에서 물질주의 가치와 같은 외적 가치의 추구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저해하고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게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가능하나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Dittmar 외(2014)의 메타연구에서는 환경-일치 가설(environment-congruence hypothesis)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온 남성이 물질주의적

목표에 집중할 때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더 용인되기 때문에 물질주의 가치 추구에 따른 결과에서 성차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이러한 남성 가장 모형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아직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주의 가치 추구하고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하지는 않았지만, 연구모형 전체에 대해 성차를 검증한 결과 기본심리욕구에서 심리적 부적응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남학생이 더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는 성차가 발견되었다. 인간이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기본심리욕구의 영향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Ryan & Deci, 2000a) 본 연구결과 남자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여자청소년보다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심리적 부적응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기본심리욕구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성차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지 확인하고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 지향과 기본심리욕구의 충족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는 강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은 우리 문화(전귀연, 1998; 홍은실, 2008)에서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 추구가 이들의 발달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업성취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입시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고 비교경쟁 및 입시성패 등의 외적 동기가 자극되기 쉬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연구결과 외적 가치의 추구는 성별에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심리욕구 좌절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입시위주의 교육과 성취 결과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등 외적 결과가 중시되기 쉬운 국내 교육환경에서 청소년 개인의 물질주의적 가치추구가 심리적 학업적 적응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학교현장에 주는 함의가 있다. OECD가 주관하여 40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및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의 주관 하에 40개국 이상 참여한 수학과학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TIMSS)를 포함한 국제 청소년 비교 연구를 종합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인지적 학업성취도는 최상위인 반면 상대적으로 내적 동기가 낮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학업

흥미와 학습에서의 자율성이 떨어졌다(김성일 외, 2008). 본 연구결과는 평가, 경쟁, 등수와 같은 외적 보상 등에 의존하고 자율적인 학습흥미를 제한당하기 쉬운 학교 환경에서 물질주의 가치의 내재화가 청소년의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침해하는 하나의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외모주의 그리고 성적지상주의는 모두 돈, 외모, 이미지, 성취의 외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Kasser, 2002). 교사와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외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면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심리적 적응과 학업성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적응을 위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상담에 주는 함의가 있다.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동조성이 강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박성연 외, 2001),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가 특히 쉽다. 청소년 정책 및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돈, 인기, 이미지와 같은 외적 가치보다는 공동체, 자아실현, 영성과 같은 내적 가치(Kasser & Ryan, 1996)를 탐색할 기회를 갖도록 돕는다면 기본심리욕구 등과 같은 내적만족을 통해 이후 심리사회적으로 보다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적 부적응이나 학업부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도 현재 당면한 심리적 학업적 문제의 원인뿐만 아니라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체계 검토에 따라 삶의 동기 및 내적 만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인지, 정서, 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제주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국내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같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타 환경적인 혼입변인이 통제될 수는 있었으나, 이들이 국내 청소년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표집을 통해 국내 청소년의 물질주의적 가치와 적응의 관계를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의 측정을 위해 물질주의 가치 척도(Material Values Scale) 한가지만을 사용했다. 그러나 물질주의를 단순히 돈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만이 아닌 이미지나 지위 등 외적 가치를 포함한 가치의 묶음으로 측정하거나 다른 가치들에 대한 물질적 가치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측정하는 것이 물질주의와 적응의 관계를 더 잘

나타낸다고 하는 메타연구(Dittmar et al., 2014) 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물질주의 가치는 외적 가치가 내적 가치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의 측정에서 돈, 이미지, 지위와 같은 외적 가치의 군집을 함께 측정하거나 물질주의적 가치와 기타 가치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상관연구로서 연구 변인간의 방향성에 대한 해석에 한계가 있다. 이미 국외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물질주의가 기본심리욕구 불만족을 거쳐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로 가는 방향성이 확인되었는데(Wang et al., 2017) 추후 국내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도 물질주의가 기본심리욕구를 거쳐 심리적 적응 및 학업 성취로 가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종단 및 실험 연구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 및 학업적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을 밝혔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발달과정에서 물질주의에 선행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특정한 사회·환경적 맥락이 인간의 내적 동기를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외적 동기를 보다 자기결정적으로 만들고 내적 동기를 향상 및 유지시키기 위해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적절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후속연구 및 지속적인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김아영, 2010; Ryan & Deci, 2000a). 현재까지 국내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선행변인으로는 부모양육태도와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 및 양육태도(김유연, 박성연, 2001; 백지숙, 박성연, 2004)와 같은 가정환경적 원인이 연구된 바 있는데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개입을 위해 가정환경 외의 학교, 또래영향 등 다양한 사회 환경적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 학교진로교육 지표조사**.
- 구재선, 서은국 (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63-83.
- 권순용, 양연숙 (2007).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 학업동기, 가족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115-129.
- 김갑숙, 전영숙 (2012).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충동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5), 903-913.
- 김경미 (2014).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295-314.
- 김명식 (2009). 청소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2), 53-67.
- 김성수, 윤미선 (2012) 자기결정성이론의 연구 동향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학연구**, 50(4), 77-106.
- 김성수 (2015). 기본심리욕구, 생애목표,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1), 1-25.
- 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한국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 실태, 진단 및 처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187-221.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 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 609.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한국교육심리학회지**, 22(2), 423-441.
- 김유연, 박성연 (2001). 부모 양육태도 및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13.
- 김진혁 (2011). **KBS다큐멘터리 행복해지는법: 만성불행증후군인 한국인을 위한 행복 취재 보고서**. 서울: 리더스북.
- 박성연, 이종미, 임숙자 (2001).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의 생활·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1-18.

- 백지숙, 박성연 (2004).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관 및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7), 119-129.
- 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성인기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이상적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75-896.
- 송인숙 (1991). 물질주의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논집**, 11(1), 91-104.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민희, 정태연 (2008).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한 학습동기 경로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77-99.
- 이장호, 한덕웅, 전경구 (1996). Spielberg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 1-14.
- 장동산, 이길홍, 민병근 (1985). 한국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성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의대지**, 10(4), 405-422.
- 전귀연 (1998). 가족 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87-103.
- 최상진, 전경구,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 - 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최재빈, 박인호, 이상현, 최지호, 조성민 (1999).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력간의 상관관계. **가정의학회지**, 20(9), 1144-1151.
- 한순미 (2003). 중다목표관점에서의 성취목표와 자기조절 학습전략 사용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3), 291-312.
- 한영희, 조아미 (2009). 고등학교 청소년의 등교거부 경향성에 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4), 23-44.
- 홍기원, 김연우 (2015). 물질주의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의 실험적 탐색. **로고스경영연구**, 13(1), 1-1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홍은실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물질주의 성향과 그에 따른 유형 분류 및 재

정적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77-390.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elk, R. W. (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3), 265-280.
- Browne, B. A., & Kaldenberg, D. O. (1997). Self-monitoring and image appeals in advertising. *Psychological Reports*, 81(3), 1267-1275.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rroughs, J. E., & Rindfleisch, A. (2002). Materialism and well-being: A conflicting values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9(3), 348-370.
-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é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
- Caldwell, C. H., Zimmerman, M. A., Bernat, D. H., Sellers, R. M., Notaro, P. C. (2002). Racial identity, ment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3(4), 1322-1336.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 326-346.
- Chen, B., Vansteenkiste, M., Beyers, W., Boone, L., Deci, E. L., Van, d. K. et al. (2015).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need frustration, and need strength across four cultures. *Motivation and Emotion*, 39(2), 216-236.
- Chen, Y., Yao, M., & Yan, W. (2014). Materialism and well-being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10), 1232-1240.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Deci, E. L., Koestner, R., & Ryan, R. M. (1999). A meta-analytic review of experiments examining the effects of extrinsic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5, 627-668.
- Deci, E., & Ryan, R. (Eds.),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 49(3), 182-185.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Seou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ittmar, H. (2008). *Consumer culture, identity and well-being: The search for the "good life" and the "body perfect."* Hove, England: Psychology Press.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Goldberg, M. E., Gorn, G. J., Peracchio, L. A., & Bamossy, G. (2003). Understanding materialism among youth.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3, 278-288.
- Grouzet, F. M. E., Kasser, T., Ahuvia, A., Dols, J. M. F., Kim, Y., Lau, S. et al. (2005). The structure of goal content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5), 800-816.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65, 410-422.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Kasser, T. (2002).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Cambridge, MA: MIT Press.
- Kasser, T. (2005). *Frugality, generosity, and materialis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hat do children need to flourish: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indicators of positive development* (pp. 357-373).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P. Schmuck, K. M. Sheldon, P. Schmuck, & K. M. Sheldon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pp. 116-131). Ashland, OH, US: Hogrefe & Huber Publishers.
- Kasser, T., Rosenblum, K. L., Sameroff, A. J., Deci, E. L., Niemiec, C. P., Ryan, R. M. et al. (2014). Changes in materialism,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and an intervention experiment. *Motivation and Emotion*, 38(1), 1-22.
- Kim, Y., Kasser, T., & Lee, H. (2003). Self-concept, aspirations, and well-being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3(3), 277-290.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Guilford.
- Ku, L., Dittmar, H., & Banerjee, R. (2012). Are materialistic teenagers less motivated to learn?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idence from the United Kingdom and Hong Ko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4, 74-86.
- Ku, L., Dittmar, H., & Banerjee, R. (2014). To have or to learn? the effects of materialism on british and chinese children's learning.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10(5), 803-821.
- Martos, T., & Kopp, M. S. (2012). Life goals and well-being: Does financial status matter? Evidence from a representative Hungarian sam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5(3), 561-568.
- Nagpaul, T., & Pang, J. S. (2017). Materialism lowers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the need for autonomy—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evid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1), 11-21.
- NG, J. Y. Y., Ntoumains, N., Thogersen-Ntoumani, C., Deci, E. L., Ryan, R. M., Duda, J. L. et al. (2012). Self-determination theory applied to health contexts: A meta-analysi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7, 325-340.
- Nicholls, J. G., Patashnick, M., & Nolen, S. B. (1985). Adolescents' theories of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 683-692.
- Niemiec, C. P., & Ryan, M. (2009).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the classroom: Applying self-determination theory to educational practice.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7, 133-14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4.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
- Ryan, R. M., Chirkov, V. I., Little, T. D., Sheldon, K. M., Timoshina, E., & Deci, E. L. (1999). The American dream in Russia: Extrinsic aspirations and well-being in two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509-1524.
- Ryan, R. M., & Deci, E. L. (2000a).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 Psychologist*, 55, 68-78.
- Ryan, R. M., & Deci, E. L. (2000b). The darker and brighter sides of human existence: Basic psychological needs as a unifying concept. *Psychological Inquiry*, 11(4), 319-338.
- Ryan, R. M., & Deci, E. L. (2002).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iel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form Y)("self-evaluation questionnaire")*.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Teng, F., Poon, K., Zhang, H., Chen, Z., Yang, Y., & Wang, X. (2016). Situational cuing of materialism triggers self-objectification among women (but not men): The moderating role of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7, 220-228.
- Twenge, J. M., Gentile, B., DeWall, C. N., Ma, D., Laceyfield, K., & Schurtz, D. R. (2010). Birth cohort increases in psychopathology among young Americans, 1938-2007: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 the MMPI.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145-154.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heldon, K. M., & Deci, E. L. (2004). Motivating learning, performance, and persistence: The synergistic effects of intrinsic goal contents and autonomy-supportive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246-260.
- Vansteenkiste, M., Lens, W., & Deci, E. L. (2006) Intrinsic versus extrinsic goal contents in self-determination theory: Another look at the quality of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41(1), 19-31.
- Vansteenkiste, M., Neyrinck, B., Niemiec, C. P., Soenens, B., Witte, H., & Broeck, A. (2007). On the relations among work value orientation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job outcomes: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0(2), 251-277.

Wang, R., Liu, H., Jiang, J., & Song, Y. (2017). Will materialism lead to happiness?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5, 312-317.

ABSTRACT

Materialistic valu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Kim, Youna* · Seol, Kyoungok** · Park, S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tic value, basic psychological need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dolescents. Specifically, we hypothesized that the adolescents' materialistic value would predict increase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decreased academic achievemen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would mediate these relationships respectively. We further hypothesized that there would be a number of gender related differences between materialistic value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337 adolescents(boys:195, girls:142) were surveyed on their attitudes to materialistic value, basic psychological needs, depression and anxiety. Data related to their academic achievement was collected from nationwide scholastic aptitude test scores. Our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tic value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tic value and academic achievement. Basic psychological needs had fully mediating effects between both relationships. There was no gender related differences between materialistic value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aterialism could result in maladjustment

* Ewha Womans University

** Ewha Woma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oseol@ewha.ac.kr

*** Ewha Womans University

among adolescents through frustration of their basic psychological needs, combined with the Korean soci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Furthe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materialistic value, adolesc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ical maladjustment

투고일: 2017. 6. 11, 심사일: 2017. 7. 28, 심사완료일: 2017. 8. 10